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부여잡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부여잡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부여잡다

완성된 이름

부여잡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부여잡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두 손으로 힘껏 붙들어 잡다.

요약 연대표

표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뒤희잡다	-	-	-	-
뒤희잡다	-	-	-	-
부여잡다	-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두 손으로 힘껏 붙들어 잡다.

문헌의 첫 기록

18세기

수록 용례

8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7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부여잡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두 손으로 힘껏 붙들어 잡다.



부여잡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부여잡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뷔허잡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뷔여잡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부여잡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뷔허잡- 문헌 수록 표기	—	—	—	●→	—	—
뷔여잡- 문헌 수록 표기	—	—	—	—	●→	—
뷔허잡- 문헌 수록 표기	—	—	—	—	●→	—
부여잡-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뷔혀잡다
18세기
- 뷔여잡다
19세기
- 부여잡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4종

뷔혀잡-, 뷔여잡-, 뷔혀줍-, 부여잡-

↳ 부여잡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부여잡다’의 옛말인 ‘뷔혀잡다’는 18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뷔혀잡-’은 단단히 꼬다를 뜻하는 말로 추정되는 ‘*뷔히-’와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뷔혀’에 동사 ‘잡-’이 결합한 것이다.

ㄴ 표기와 소리의 특징

근대 국어 시기에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는 현상에 따라 19세기에 ‘뷔여잡-’이 나타난다. 19세기에 나타나는 ‘뷔여줍-’은 ‘·’와 ‘ㅏ’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것이다. ‘뷔여잡-’의 제1음절과 제2음절의 반모음 ‘ㅣ’[j]가 겹치면서 제1음절의 반모음이 탈락한 ‘부여잡-’이 20세기에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부여잡다

전체 용례 8개

18세기 뷔혀잡-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뷔혀잡-

출처 1728 청구영언 진본 54ㄴ

용례 01

66 문헌 용례

오자락 뷔혀잡고 가지 마소 후논디 無端히 썰치고 오자 함도 어렵더라.

現代어 풀이

옷자락 부여잡고 가지 마소 하는데, 무단히 떨치고 오자 함도 어렵더라.

19세기 뷔여잡-, 뷔혀잡-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뷔여잡-, 뷔혀잡-

출처 1840 춘향전 단:11ㄱ

용례 02

66 문헌 용례

치마 압흘 뷔여잡고 성천초 김성초 삼등초를 니여놋코.

現代어 풀이

치마 앞을 부여잡고 성천초, 김성초, 삼등초를 내어놓고.

출처 1864 남원고사 1:41ㄴ

용례 03

66 문헌 용례

저 춘향의 거동 보소 치마꼬리 뷔여잡고 등문 밧기 니다라셔.

現代어 풀이

저 춘향의 거동 보소, 치마꼬리 부여잡고 등문 밖에 내달아서.

출처 1876 가곡원류 85

용례 04

66 문헌 용례

오자락 뷔혀잡고 가지 마쇼 후는디 無端이 썰티고 오자함도 어렵더라.

現代어 풀이

옷자락 부여잡고 가지 마소 하는데, 무단히 떨치고 오자 함도 어렵더라.

출처 1876 가곡원류 123

용례 05

66 문헌 용례

다시금 羅衫를 뷔혀잡고 後ㄷ期約을 못노라.

現代어 풀이

다시금 비단 적삼을 부여잡고 뒷날 기약을 묻는다.

20세기 부여잡-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부여잡-

출처 20세기 전반 열녀춘향수절가 상:43ㄴ

용례 06

66 문헌 용례

춘향은 마루 아리 툇 써러져 도련임 다리를 부여잡고.

現代어 풀이

춘향은 마루 아래 툇 떨어져 도련님 다리를 부여잡고.

출처 1923 동아일보 2월 28일 4면

용례 07

66 문헌 용례

"설화야! 왜 이러니. 네가 미쳤니?" 하고 설화를 부여잡고 운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6 문헌 용례

음습한 방 속에서 굶주린 창자를 부여잡고 치위를 못 견대어 벌벌 떨고 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부여잡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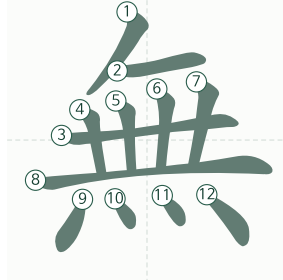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부여잡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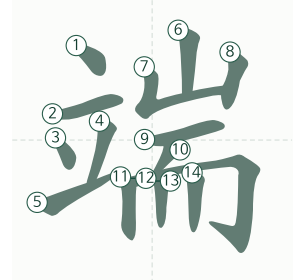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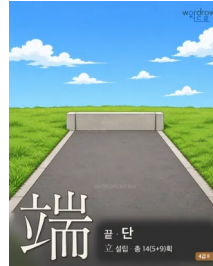
뜻·음 없을 무
총 12획 · 부수 火



hanja.wordrow.kr/한자/無/

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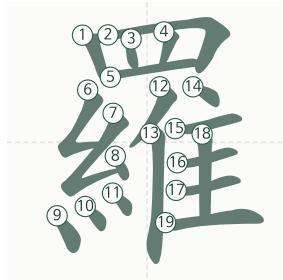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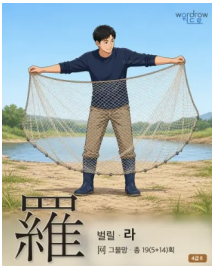
뜻·음 끝 단
총 14획 · 부수 立



hanja.wordrow.kr/한자/端/

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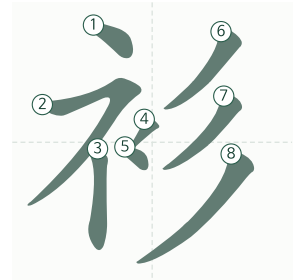
뜻·음 벌릴 라
총 19획 · 부수 网



hanja.wordrow.kr/한자/羅/

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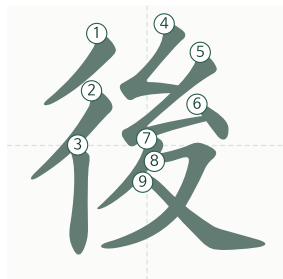
뜻·음 적삼 삼
총 8획 · 부수 衣



hanja.wordrow.kr/한자/衫/

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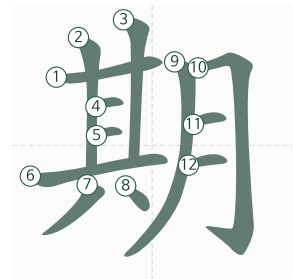
뜻·음 뒤 후
총 9획 · 부수 彳



hanja.wordrow.kr/한자/後/

期

뜻·음 기억할 기
총 12획 · 부수 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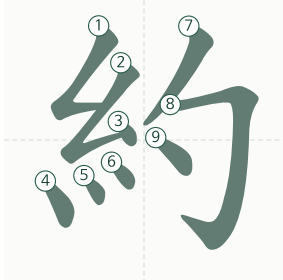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期/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約

뜻·음 맺을 약
총 9획 · 부수 糸



hanja.wordrow.kr/한자/約/